

# 미사 독서 배정의 의의와 의미

미사에서 봉독하는 성경 말씀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. 1969년 교회가 제정한 체계적인 원칙에 따라 배정되며, 이를 이해하면 봉사자로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## 1. 전 세계 공통의 독서 목록

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는 같은 날 같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. 이는 1969년 발행된 「미사 독서 목록 지침」(Ordo Lectionum Missae)에 따라 배정됩니다.

- 오늘 한국의 성당에서 읽히는 말씀은, 같은 시각 아프리카·유럽·미국의 성당에서도 동일하게 봉독됩니다.
- 이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하나의 말씀 안에서 일치함을 의미합니다.

## 2. 독서 배정의 일반 원칙

구분	내용
전례 시기 반영	대림(이사야서), 성탄(요한 1서), 부활(사도행전) 등 각 전례 시기의 특성에 맞는 성경 권수를 배정
길이와 가독성	신자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길이 유지
구절 생략 기준	이해하기 너무 어렵거나 비평적 문제가 있는 구절은 전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생략하기도 함

## 3. 주일 및 대축일 독서 (3년 주기)

- 구성: 제1독서(구약) + 제2독서(서간 또는 요한 묵시록) + 복음
- 3년 주기(가·나·다해)로 운영 — 3년이 지나면 같은 본문을 다시 읽게 됨

### 배정 원칙

- 주제의 조화: 독서의 주제와 내용이 서로 연결되도록 배치
- 준연속 독서: 성경 본문의 순서를 따르되 전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만 생략하며 읽어 나가는 방식

### 가·나·다해 복음서 배정

주기	연도 예시	주 복음서
가해	2023, 2026, ...	마태오 복음
나해	2024, 2027, ...	마르코 복음
다해	2025, 2028, ...	루카 복음
공통	모든 주기	요한 복음 (특정 전례 시기)

## 4. 평일 독서 (2년 주기)

구분	내용
----	----

구성	독서 1개(구약 또는 서간) + 복음
복음	매년 같은 본문 반복
첫째 독서	홀수해 / 짝수해 2년 주기로 배정 → 더 폭넓은 성경 말씀을 접하는 효과

## 5. 핵심 의미

교회는 전례주년에 맞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신자들이 하느님 구원 역사를 깊이 깨닫도록 돕습니다.

- 미사에 매일 참례할 경우, 3년이면 신·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통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독서자·해설자는 본인이 읽는 말씀이 어떤 전례 시기의 흐름 속에 있는지 미리 파악하면 더 깊이 있는 봉독이 가능합니다.
- 현재 사순 시기(2026년 2월~4월)에는 회개와 새신의 주제가 담긴 말씀이 배정됩니다.

## 봉사자를 위한 실천 팁

- 미사 전날 당일 독서 본문을 미리 찾아 읽어보세요. (가톨릭 굿뉴스 → 매일미사)
- 현재 전례 시기(대림·성탄·사순·부활·연중)를 파악하면 말씀의 맥락이 보입니다.
- 제1독서와 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며 읽으면 봉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.
- 어려운 지명·인명은 반드시 미사 전에 발음을 확인하세요.

참고: 가톨릭 굿뉴스 · 「미사 독서 목록 지침」(Ordo Lectionum Missae, 1969) | 어망 (Fish-Net) 보충 자료